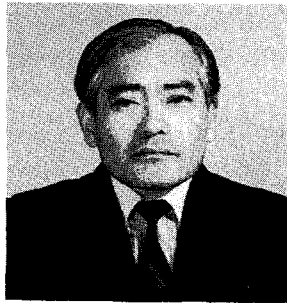


# 오늘의 낙농현실을 조명(照明)해 본다.



이재환

한일산업(주) 대관령 목장장

너 무나 멀고 험한 외로운 길  
을 맨발로 뚫지 30여년—  
이 30여년이 이제 청장년기에  
접어든 오늘의 낙농은 다시금 초  
연(硝煙)이 지나간 벼랑에 서 있  
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위해  
이른봄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  
다”

이 시(詩) 한수에 몹시 우울하

게センチ멘탈하여지는 것이 이렇게  
도 그리고 왜 서러움이 앞서는지  
모르겠다.

오늘의 낙농은 우리 낙농인의  
꾸준한 인내력으로 한발짝 한발짝  
조심스럽게 의지할 곳없이 스스로  
키워온것이 너무나 장한 산업 역  
군의 전사와 다를바 있겠는가.

가날픈 꽃 한송이 피우기위해  
같은 풍파와 냉대, 박해 조소 또

한 무관심을 받아온 오늘의 낙농  
이란 꽃을 피울때까지 흘린 눈물  
만도 바다와 같지 않겠는가.

90년 2월 현재 분유(粉乳)재고  
가 2만여톤, 작년 동기 8천톤의  
2.5배가 현재 적체되고 있다고한  
다.

적체 현상의 이유로  
첫째 유대 인상으로인한 수요  
감퇴

들째. 젖소 사양 두수의 증가 세번째로 값싼 외산유제품(外産乳製品)수입이란 것이 며칠전 C일보의 취재 판단이다.

말 난감에 솔직히 써보자.

낙농가 여러분!

여기서 우선 양해를 구한다.

몇십년간 우리 낙농인은 젖소 사양에 대한 유명한 책, 논문, 참고문헌 자료, 그리고 학자들의 판단등이 너무나 소개 되어왔고 또 귀 동냥으로 넘치고 호를만큼 피나는 경험도 쌓아왔다.

그럼에도 이 졸속한 필자가 젖소 사양 방법에있어 이렇고 저렇고 써간다는 것이 부끄럼에 앞서 그럴만한 학식이 겸비된 낙농가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과함께 천직으로알고 일해오면서 기(氣)가 죽은 눈치만이 남은 하잘것없는 축산인일뿐이다.

원고 청탁을 받아들고 정말 맘 쓰인다.

이제 젖소 사양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의 사양 기술은 어느정도 국제 수준의 문턱에 와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여 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제품이 우수하고 질량면에서 손색이없다지만 소비(판로)가 둔화되고 외면 당할때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유 한 방울을 더 많이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내는 사양 기술은 뒷전이다.

제발 사양 기술은 이쯤에서 좀 덮어 두고 우유나 적체없이 잘 팔려 나간다면 더한 바람이 없겠다.

그때면 자연히 열심히 하게되고 특출한 사양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불황기때 자체 정비도하고 사양 방법은 개선하고 종축을 개량함도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공식이다.

팔리지 않는 우유를, 가져가지도 않는 우유를 하천에 길바닥에 쏟아 붓고 연좌농성하고 야단인 차체에 우리(낙농인)는 무엇부터 해야하며 무관심한 내일을 현명하게 운영 설계할것인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낙농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일을 보자 기껏 생각해낸 것이 젖소 도태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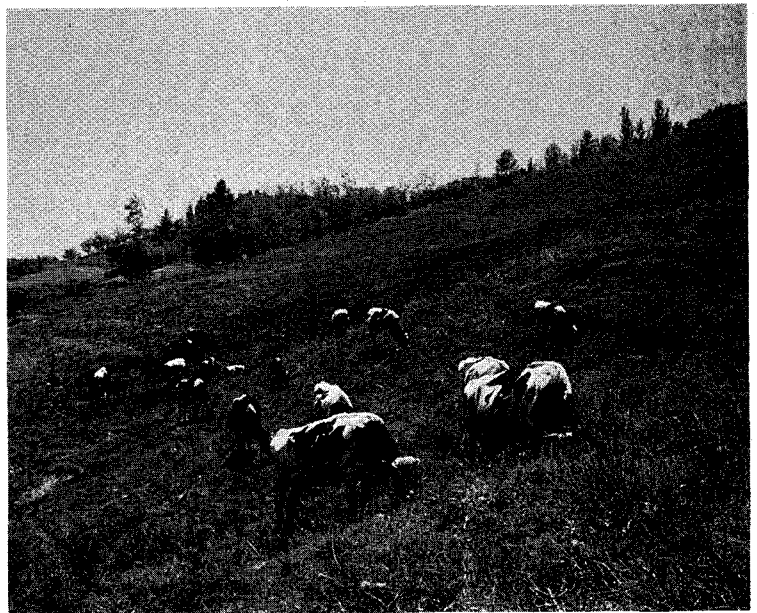
나랏돈으로 고작한다는 것이 얼마간의 분유 구매, 몇푼의 유대(乳代)를 유가공 공장쪽에 옮겨 한다고.

쌀이 남아도니 논을 메워 골프장이나 만들지요

오나 가나 젖소이니 젖소 잡아 먹고 젖소 귀해지면 달려주고 외제품 사 먹고 앉아 있을까요.

젖소 도태 15%(산유량 15kg이하의 저능력우)만으로 우유 수급 조정 정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농가 단위의 목장은 평균 20두로 보자. 이 15%는 2~3두의 젖소를 잡아 먹어야 한다.



젓소 한마리 250만원 넘는 재산을 단돈 백만원 안팎의 X값으로 대주란 말인가.

농가 단위 목장에서는 권장 도태가 잘 이행않으니 큰목장에서 시범적으로 15%는 도태하라는 권장, 권유, 권고다.

이제 낙농가는 종축 개량과 합리적인 경영등으로 도태된만큼의 우유를 더 생산해 낼 수 있는 채비는 다 되어있으니 이것 또한 딱한 정책이 아닌가.

결국 총 생산량에 파급되는 유량(乳量)에는 차질이 없게된다.

이때는 또 무슨 정책을 들고 낙농인을 설득할것인가.

뿌리는 두고 걸 핏기 정책이 빛을 보리라고 믿는 것인가.

여기서 분유 적체 해소 및 낙농의 활성화 대책 중 한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납유하는 우유의 질을 높인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유도하여 유질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한다.

유질에 따라 차등제를 두고 유대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대단히 클것이다.

첫째 유대 인상책이 보장되며 둘째 수급 안정책의 효과를 가져올것이다.

“넥타이” 매고 잔 우유와 새벽같이 장화 신고 열심히 잔 우유는 왜 똑같은 값으로 정산되어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잔 우유는 그 성의

도에 비례되어 낮은 값으로 유대가 지불되면 자연히 이러한 목장들은 경영적인 압박으로 소멸되게 되어 수급안정에도 커다란 일익을 갖게된다.

“염불보다 잣밥” 격인 부동산 투기 방편으로 목장하는 양반들은 15%되는 경우 도태에 앞서 도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않는가

며칠전 신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취재기사가 있었

“넥타이” 매고 잔 우유와 새벽같이 장화 신고 열심히 잔 우유는 왜 똑같은 값으로 정산되어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잔 우유는 그 성의도에 비례되어 낮은 값으로 지불.

다.

우유은행이란 애절한 발상을 가지고 낙농가 유가공 공장, 불우이웃돕기의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거룩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많은 호응과 더불어 주변의 찬사가 끊임이 없다는 기사는 너무나 흐뭇하였다.

이 발상을 하시고 스스로 은행장이되신 충남 아산군 박상돈(朴商敦)군수님께 우리 낙농인의 한 사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다.

1차 목표가 2만구좌라고 하여 이 목표 달성에는 시간문제라고 한다.

아산군민은 적게는 한구좌 많게는 천구좌까지 향리를 떠난 유지분들께도 호응도가 좋다니 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 업적이 아닐수없다.

중앙에 계시는 높이신 어른들께서 이런분에게 후한 상과 아울러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바란다.

## ■ 오늘날의 낙농 공식(公式) ■

눈 덮인 면산의 풀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피변의 수학적 공식이 생각난다.

$$\sqrt{90\text{년도의 낙농}} = \frac{\langle (M+P) \times E \rangle - (B+I+N)}{\dots}$$

여기서

M=인력난

P=분유적체

E=환경처의 칼같은 감시의 눈

B=우유은행

I=종축의 개량

N=국산 유제품의 무방과의 구상무역

√· =우유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수급 안전책

## 1. 인력난(M)과 분유의 적체

전국 20대 대단위 목장의 경우

1년에 사단 병력 규모(?)의 인력이 교체된다고 한다. 들어왔다 나가고 나가면 충원이란 하늘의 별이고 그나마 천신 만고 끝에 트럭 쫓무니에 농작 신고 목장 밥 먹겠다고 들어오면 정승 대접이다.

“산토끼 잡지 말고 집토끼 잘 길러라”고 이것 또한 무척 힘들고 어렵더라. 있는 사람 관리가 사람 찾기보다 열배는 힘들다.

똥 앉치고 가겠다는데는 손들어야 한다. 앞으로 더할것이다.

이유인즉 GNP(국민총소득)가 높아 간다나? 죽을 지경이다.

여기다 분유적체로 인한 낙농 침체.

바다 밑 바닥에 침몰 직전이다. 애기 먹는 우유 돼지새끼 먹이라고.

옛날 돼지새끼 들으면 부러워할 것 같다. 우유 장사가 잘되어야 사양기술도 발전되지— 입맛이 쓰다. 이래 저래 낙농이 힘든데 일씨구— 환경처 나리님들 행차는 가슴에 방망이 질이다. 괜히 두근 두근 “한번은 일제 단속때 이런 일이 있었다.

환경처직원 : 젖소의 하루 생활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필자 : 네에— 아침 착유 끝나고 방목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목포를 양껏 먹이고 축사로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농후사료를 먹이고 다시 착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축사나 계류장으로 유도해두

면 하루 일과는 마칩니다.

환경처직원 : 농후사료가 뭘사료인가요

필자 :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곡물과 여러가지 영양소 무기물등이 혼합되어있는 배합사료를 말합니다.

환경처직원 : 알겠습니다.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농후사료를 먹고 초지로서 방목된다지요, 그때 소들이 똥을 싸지요, 이것이 비가 오면 녹아 흘러 하천을 오염시킵

**북한의 비옥한 개마고원 지대 같은 고원에 초지를 일구워 우리 개량된 젖소, 우리의 숙달된 낙농 기술로 그쪽의 풍부한 인력등을 합쳐 낙농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니다. 당신은 바로 위법사항을 진술하신 겁니다. 환경보존법 제32조 산업 폐기물 투기를 하신 겁니다.

산업 폐기물 투기 위반이랍니다. 앞으로 새풀이 돋아나면 방목을 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커다란 귀저기를 500개나 주문해야 했는데 걱정이다. (소 귀저기 발명특허 연구중)

괜한 글로써 이분들 감정전드리면 필자만 손해이니 이만쓰고 망

언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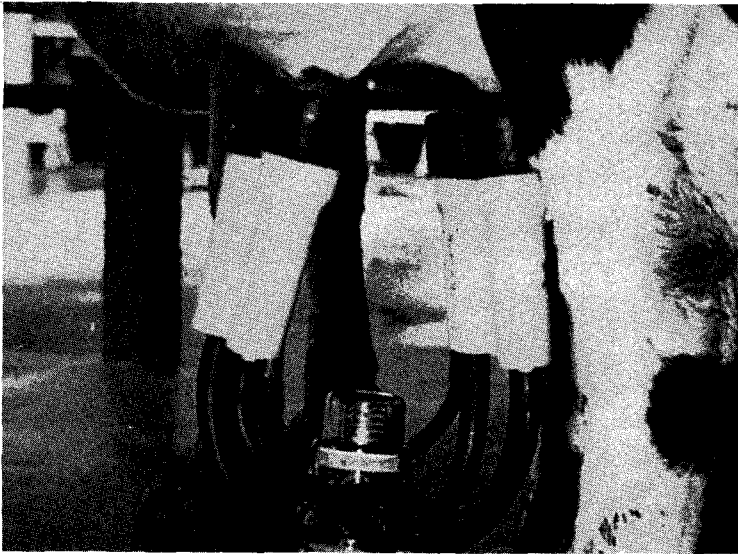
결국 인력난에 분유적체, 여기다 환경관계 신경쓰라 정말 낙농이 어렵긴 어렵다. 그러나 비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이 아산군의 우유은행과 같은 일석삼조의 제도 도입, 여기다 우리의 꾸준한 종축개량(늦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빠른 시일내 개량되어지는 것일 종축개량이다)개념이다. 열마리의 착유우에서 8마리로 감축했어도 유량은 오히려 높일수 있기에 인류 필생의 아카데미한 산업이다. 다시 하나를(N) 더 보태본다. 한국의 90년대는 반듯이 오고야마는 것일 북방외교의 승리이다.

절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낙농인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지난번 김만철씨 가족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하는말이 그렇게도 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북에 있을때 우유 한방울 먹어보지 못했고 더욱이 젖소를 구경해본 일이없다고 했겠다. 중국시장 좋지요— 소련시장 기가찰겁니다.

현재 체화되는 매딘 코리아(Madein Korea) 낙농제품(물론 타 공산품 식품등도 가겠지만)이 북한으로 중공으로 소련으로 빨리 빨리 실려 나가 이곳의 요긴한 원료들과 구상무역(求償貿易)된다면 우리의 낙농은 더할데없는 1등 산업으로 비약이 되지않겠는가



**엇그제까지 흘렸던 눈물 자국을 훔치고 한마음으로 몽칩시다. 늦지 않았습니니다. 낙농경영이란 어려운 개념을 공부하며 개선해 갑시다. 실오리보다 더 가냘픈 정책들을 그래도 또 한번 믿기로 합시다.**

만화같은 이야기로 보지 말자. 북한의 비옥한 개마고원 지대같은 고원에 초지를 일구워 우리의 개량된 젖소 우리의 숙달된 낙농기술로 그쪽의 풍부한 인력등을 합쳐 낙농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닥아오고있으니 말이다. -우선 남은 우유주고 말 잘듣는 놈 데리고 왔으면 제일 좋겠다-

이상 이러한 개념들을 앞서 열거한 수치(數値)에서 빼보면 다소의 전망은 약속받을 수 있겠다. 다만 앞서공식에서 산출(算出)한 수치가 좀 커질지 모르지만. 이모

든 수치의 답을 다시 루트( )를 제곱근을 구하여 얻어지는것이 90년도의 낙농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서 괴짜공식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낙농인 여러분!

답답한 마음 이 공식을 보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핀잔 하지 마세요

낙농가 동지들!

이제 훨훨털고 일어섭시다. 몽칩시다.

엇그제까지 흘렸던 눈물 자국을 훔치고 한마음으로 몽칩시다. 늦지않았습니니다. 낙농경영이란 어려운 개념을 공부하며 개선해 갑시다. 실오리보다 더 가냘픈 정책들을 그래도 또 한번 믿기로 합시다.

사양관리만 잘해보겠다고 앉아 있을때가 아닙니다. 조용한 전진을 위하여 후배낙농인을 위하여 어짜피 치루어야할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진 개척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끝으로 폭발할것 같은 마음을 억눌러 이 말은 꼭 하고 필을 놓겠다.

이상구!(씨(氏)는 빼겠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살때 너는 미국으로 고국을 등지고 도망간 주제에 - 그래 좋다!

그곳에서 잘먹고 잘살아라. 풀만 먹고 말이다 고국의 품이 그림다고 다시 오기만 해 봐라  
 우리 우유먹고 튼튼하게 잘 살아 불타이니-

이제 잠잠 자야겠다 너무 늘은 밤이다. 밖에는 때 늦은 눈발이 조용히 내리고 있다. 한가지의 사양관리의 소개보다 더한 값어치를 이글에서 찾는다면 하는 기대감으로 이글을 마친다.

오늘의 낙농이 우리를 너무나 압박하고 있기에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